

“없으면 허수아비” vs “있으면 무소불위”

뉴스초점 / 민주·바른미래 기소권 부여 이권에 막힌 공수처법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처리 논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과 함께 공수처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편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와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현안에 대

선거제 패스트트랙 걸림돌

양당 합의의 도출 연이은 실패

여론은 찬성이 2배 이상 높아

해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수처 설치에서 핵심 쟁점은 기소권 부여 여부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공수처 설치 필요성의 근거로 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

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일단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소권은 검찰에 쥐어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 위의 옥상옥이 돼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은커녕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더욱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권력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론은 일단 민주당 쪽에 유리한 상황이

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응답이 65.2%, 반대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322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59.4%로, 찬성 응답(27.5%)보다 두 배나 높았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안과 절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 ‘김학의 CD’ 인지 정황 속속 드러나”

민주 파상공세...진상규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CD' 인지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황 대표가 2013년 법무장관 재직 시절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듭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두노미(蔣瑠露尾)라는 말이 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잘못이 드러날까 숨기려고 전전공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며 "김학의 사건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황 대표의 모습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실현 최고위원은 "박영선 후보가 황 대표를 만난 일정이 드러났고 법사위 속기록과 동영상에서도 황 대표가 사건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며 "황 대표의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명 똥방 넘어가선 안 된다. 누가 경찰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

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박상도 의원을 향해 "과 의원은 경찰이 허위보고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징계가 없었다고 한다"며 "과 의원은 경찰에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김학의 전 차관과 이종희 당시 민정비서관의 특수관계를 언급하며 "김 전 차관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춘천지검장이었고 이전 비서관은 영월지검장이었다"며 "당시 영월지검장도 별장에 다녔는지,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인지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 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설현 최고위원은 "박영선 후보가 황 대표를 만난 일정이 드러났고 법사위 속기록과 동영상에서도 황 대표가 사건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며 "황 대표의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명 똥방 넘어가선 안 된다. 누가 경찰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

창원·성산 ‘진보 수성’, 통영·고성 ‘보수 아성’ 이어갈지 주목

4·3보선D-2 관련 포인트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회의원 보선은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2곳에서만 치러지는 '미니 선거'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가 불린다.

지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창원성산 보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의 1대1 구도가, 통영·고성 보선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후보의 대결 구도가 각각 그려졌다.

◇창원성산...진보진영 수성? 한국당 탈환? 창원성산은 경남 지역의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린다.

지난 17·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배출했고, 가장 최근인 20대 총선에서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이룬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승리로 장식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번 보선에 출마한 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창원성산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내세웠다. 진보진영 표 본산을 막아 한국당을 누르고 창원성산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정의당과 한국당 후보가 팽팽했던 선거 초반과 달리, 후보 단일화 이후 판 자체가 여 후보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정의당 후보 단일화의 반



황교안 축구장 유세 '후폭풍'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작용으로 보수결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지역 노동자 그룹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손석형 후보의 완주에 따른 진보층 표 분산 가능성도 있다.

◇통영·고성, '보수 아성' 이어가나? 통영·고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근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곳이다. 그만큼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보수의 아성'이다. 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

며 민심의 변화 조짐을 보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승부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 지방 양문석 후보가 한국당 정점식 후보에 큰 격차로 열세를 보였지만 중반 이후 상승세에 올라타고 있다고, 남은 기간 당력을 총동원해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종일 통영·고성에 머물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지원 유세

에 나섰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의 총력전에 끝까지 밤심해선 안 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만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 등을 앞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한국당은 조선업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100명 사전동의 받아야 靑 국민청원 가능

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청원 글을 등록하려면 100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청원 개편 방안을 지난 29일 공개했다. 개편안은 31일 오전 5시부터 홈페이지에 적용됐다.

기존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

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청원자가 청원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청원자에게는 청원 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부여된다. 청원자가 이 주소를 자신의 SNS에 올려놓는 다음, 100명이 해당 링크로 접속해 동의하고 나면 그때야 청원 글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임동욱 기자 tuim@

평화당 광주시당 위원장 최경환·전남도당 위원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각각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과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을 지역위원장



최경환 의원 윤영일 의원

으로 선출했다. 광주시당은 지난 3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정기당원대표자회의(개편대회)를 열고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최경환 의원을 뽑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인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광주와 호남을 대변해 왔다"며 "광주에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고,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든 것도 민주평화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은 지난 29일 무안군 삼향읍 스키아웨딩컨벤션에서 개편대회를 열고 윤영일 의원을 전남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당은 이날 당원과 대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내 4·15 총선 승리와 민생, 민주, 평화 개혁 실천을 결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개발계획(이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여수시청

1. 사업개요
○ 사업명: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개발계획
○ 위치: 전남남도 여수시 중흥동 1729번지 전면 공유수면
○ 사업시행자: ㈜엘지화학
○ 사업기간: 2019년 7월 ~ 2020년 10월
○ 사업규모: 준설면적 172,105㎡, 준설량 110만㎥, 접안시설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목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의 주민의견 수렴
○ 공람기간: 2019년 4월 1일 ~ 2019년 4월 26일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여수시 기후환경과, 모도동 주민센터, 삼일동 주민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모도동	2019년 4월 18일 오전 10시	모도동 참총마을 마을회관 1층
삼일동	2019년 4월 18일 오후 3시	삼일동 주민센터 3층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처: 공람장소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간: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9년 5월 3일까지)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환경과(☎061-659-3815), ㈜LG화학 3 NCC PROJECT팀(☎010-2331-0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eiass.go.kr)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음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대지 등 1749㎡ 교환가능 1억6천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 7개환기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창장로5가 버스도점 상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창종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물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 지주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육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거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
- 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